



2023. 2. 16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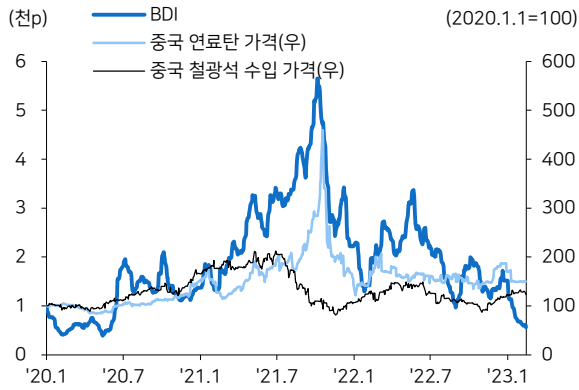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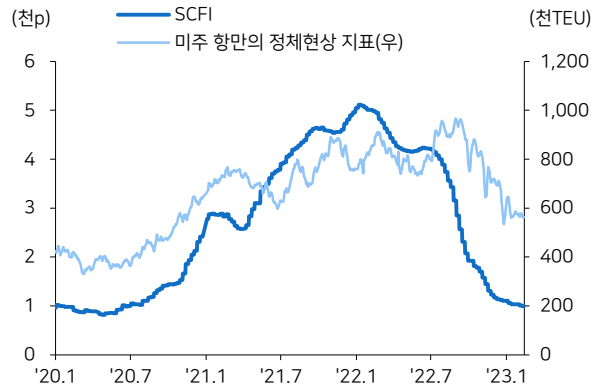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a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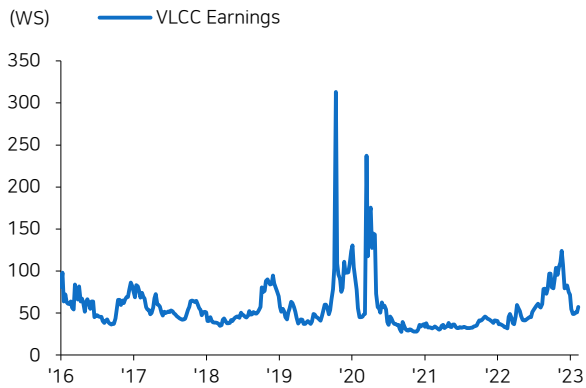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541.0p(-2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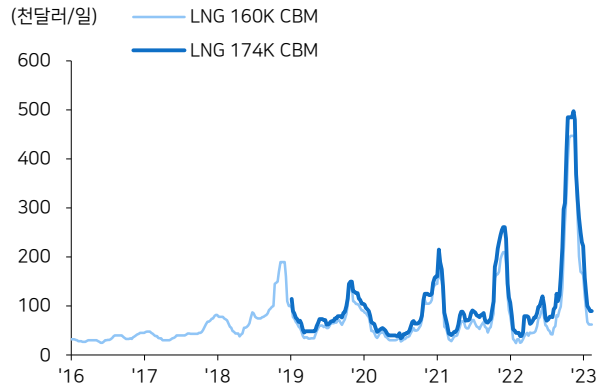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95.2p(-11.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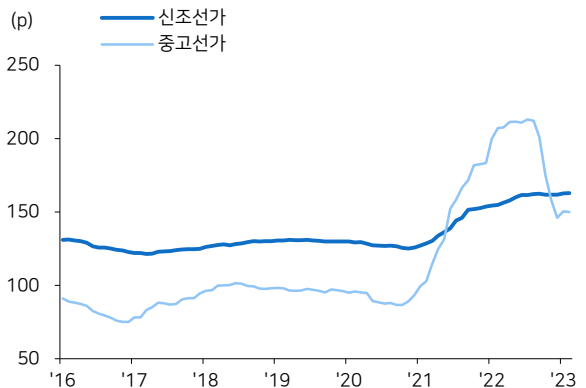
VLCC Spot Rate 57.4p(+6.7p WoW)



LNG Spot 운임 62.5p(+0.0p WoW) 90.0p(+0.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3.2p(+0.1p WoW) 150.0p(-0.1p WoW)



항공시장 지표 274.6p(+0.0p DoD) 105.0p(+0.7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트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Advantage, 한국조선소에 Suezmax 탱커 3척 발주 채비

Advantage tankers가 한국 조선소에 158,000DWT급 탱커 3척을 발주할 것으로 보도됨. LNG 이중연료 스크러버 장착 탱커 3척에 대한 LOI를 체결했고, 기술적 논의를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25년 인도 예정으로 대한조선에 해당 7,900만달러 수준으로 발주될 것으로 알려짐. (선박뉴스)

Thenamaris returns to Chinese shipyard for product tanker order trio after ten-year hiatus

그리스 Thenamaris가 중국 Shanghai Waigaoqiao Shipbuilding(SWS)에 115,000DWT급 PC선 3척 LOI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LR2 두 척에 옵션분 한 척 계약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인도할 예정임. 척당 6,350만달러로, 고스펙에 따라 추가 200만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짐. SWS를 선택한 이유는 빠른 인도일정에 기인한다고 설명됨. 전통연료 선박이지만 하이브리드 스크러버가 장착될 것으로 알려짐. (Tradewinds)

'Refuse to work': Ukraine slams Russia over Bosphorus grain shipping delays

UN이 주도한 곡물수출협정이 3월 종료를 앞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됨.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이스탄불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선박감독관들이 업무처리를 질질 끌면서 보스포루스 해협 대기선박이 140척 수준이라고 발표함. 계획된 10개 검역 중 절반만 진행되는 수준으로 설명함. 러시아측의 업무 지연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의 첫 공식적인 항의로 알려짐. (Tradewinds)

Capesize bulker market continues to fall as activity slump grips Atlantic and Pacific markets

대서양 및 태평양 지역의 부진한 성약으로 Capesize 벌크선 운임이 이틀연속 하락했다고 보도됨. Capesize 5TC은 전일 29% 하락에 이어 수요일(15일) 17% 하락해 2,630달러/일을 기록했다고 알려짐. 전일대비 완만한 폭으로 하락하며 일부는 현재 시황이 바닥이라고 언급함. 호주 Rio Tinto와 일부 화주는 C5 호주서부-칭다오 철광석 항로 성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짐. 이에 C5 항로는 0.14달러/톤 하락해 6.165달러/톤 수준이라고 알려짐. (Tradewinds)

Malaysia offers 12 assets in 2023 licensing round

말레이시아가 10개 임대부지 판매(MBR 2023)에 나선다고 보도됨. 대부분 천해 해상부지로 4개 유전과 2개 DRO(Discovered Resource Opportunities)로 구성되었다고 알려짐. 말레이시아의 잠재매장량은 원유 약 210배럴 가량으로 알려짐. (Upstream)

한국에 이어 중국도 "비자제한 해제"

한국에 이어 중국도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됨. 2월 18일부터 한국 국민 대상 중국 단기 비자 발급이 재개된다고 알려짐. 또, 중국 내 경유지에서 72~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해진다고 알려짐. 양국 간 비자 발급은 40여일만에 정상화되는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